

# 노관산 한대 분묘 출토 의서 『육십병방(六十病方)』에 관한 고찰

- 기(氣), 혈(血), 본초 귀경(歸經)을 중심으로 -

<sup>1</sup>釜山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博士課程 · <sup>2</sup>釜山大學校 韓醫學專門大學院 教授

鄭勝瀚<sup>1</sup> · 金基旺<sup>2\*</sup>

## A Study on the Excavated 『Liu Shi Bing Fang』 from the Lao Guan Shan Cemetery - focussed on Qi, Blood, and Attributive Channel Theory of Herbal Medicine -

Jung Seunghan<sup>1</sup> · Kim Kiwang<sup>2\*</sup>

<sup>1</sup>Graduate Student at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sup>2</sup>Professor at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 To determine the level of medicine in the Earlier Han period through 『Liushi Bing Fang』.

**Methods** : Original texts were collected from previously published studies on 『Liushi Bing Fang』 and books to reconstruct the text of 『Liushi Bing Fang』.

**Results & Conclusions** : 151 tablets out of the entire 213, a total of 4,084 characters out of the entire 9,000 were collected. This amounts to about 45% of the entire 『Liushi Bing Fang』. Based on this finding, we could summarize the following. First, the concept of Qi is used in the context of illness, indicating the usage of Qi as a medical concept to be much earlier than previously known, as it appears in a herbal treatment text. Second, on Blood, similarly to 『Wushier Bing Fang』 and 『Wuwei Handai Yijian』, it refers to the physical blood as well as name of disease. Moreover, the concept of stagnated blood is mentioned as ‘neiyu(內瘀)’ in 『Liushi Bing Fang』, meaning that the doctors of the time held this concept and also had the medicinal knowledge to treat this condition. Third, within 『Liushi Bing Fang』, there are contents on the body parts each medicinal mainly treats. This indicates to the understanding that not only were they at the level to connect each medicinals to its mainly applicable disease, but they were able to connect the herbal medicinals to the inner constructions of the bod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first text to provide the base to the attributive channel theory of herbal medicinals, where each medicinal’s properties and effects are connected to the Zangfu and body parts, needs to be newly acknowledged as 『Liushi Bing Fang』 instead of 『Shennongbencaojing』 as previously known.

**Key words** : Liushi Bing Fang, Lao Guan Shan

\* Corresponding Author : Kim Kiwang.

Division of Applied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Tel: +82-51-510-8466, E-mail: [kingiwang@hanmail.net](mailto:kingiwang@hanmail.net)

Received(January 21, 2020), Revised(February 7, 2020), Accepted(February 7, 2020)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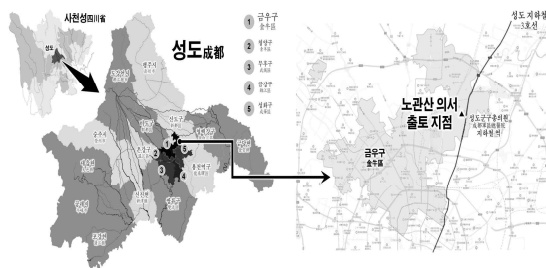
## I. 서론

2012년 7월 중국 사천성(四川省) 성도(成都)시 금우구(金牛區) 천회진(天回鎮)에서 지하철 공사 도 중 고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과 의서를 포함한 다양한 부장품이 발견되었다(그림 1, 그림 2).

그림 1. 노관산 의서의 출토 지역. 노관산 의서와 관련된 주요 문물의 출토 위치와 출토 시기를 함께 표시함.



그림 2. 노관산 의서 출토 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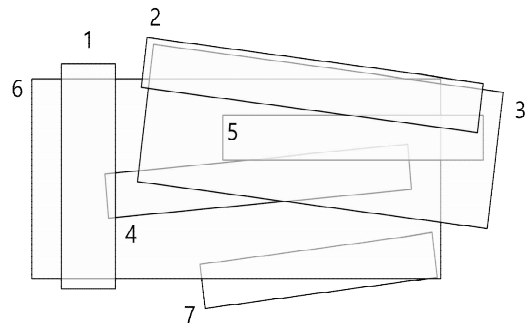
그 후 2013년 8월까지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3개의 고분들이 더 발견되었으며 4개의 고분들은 발견 순서에 따라 각각 M1, M2, M3, M4라고 지칭되었다. 이 고분들은 출토된 문물들로 유추해 보았을 때 매장시기가 전한(前漢) 경제

(景帝)(재위 기원전 157~141)에서 무제(武帝)(재위 기원전 141~87) 사이로 추정된다<sup>1)</sup>. 고분들은 매장되었던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사천성도천회한묘(四川成都天回漢墓)라고 불리기도 하고, 현지 이름이 속칭 노관산(老官山)이기에 흔히 노관산한묘(老官山漢墓)라고도 불린다.

4개의 고분들 중 M3 고분에서는 의학에 관한 내용이 담긴 죽간(竹簡) 920여개가 나왔다. 이 중 736개의 죽간은 고분의 북쪽 제2실에서 그림 3과 같은 형태로 발견되었고<sup>2)</sup>, 나머지 184개의 죽간은 고분의 남쪽 제1실에서 발견되었다. 북쪽 제2실에서 발견된 죽간 736개는 유물번호 'M3 : 121'로 지정되었고, 남쪽 제1실에서 발견된 죽간 184개는 유물번호 'M3 : 137'로 지정되었다<sup>3)</sup>. 'M3 : 137'의 184개의 죽간은 수의학 서적이었고, 'M3 : 121'의 736개의 죽간은 의학 서적이었다.

'M3 : 121'의 죽간들은 죽간마다 번호가 매겨졌고, 죽간이 쌓여진 위치, 죽간의 길이, 글의 서체 등을 참고하여 표 1과 같이 총 9종의 책으로 분류되었다<sup>4)</sup>.

그림 3. 'M3 : 121' 죽간들의 발견 당시 모습



- 1) 趙懷舟 外 4人. 《六十病方》地名略考. 中醫藥文化. 2015. 30(4). p.35.
- 2) 和中浚 外 5人. 老官山漢墓醫簡《六十病方》排序研究. 中醫文獻雜誌. 2015. 22(4). p.2.
- 3) 梁繁榮, 王毅, 李繼明 主編. 揭秘獻昔遺書與漆人: 老官山漢墓醫學文獻初識. 成都. 四川科學技術出版社. 2016. pp.9-27.
- 4) 和中浚 外 5人. 老官山漢墓醫簡《六十病方》排序研究. 中醫文獻雜誌. 2015. 22(4). pp.2-3.

표 1. 'M3 : 121' 죽간들의 번호와 서적 명칭

위치*	서적명칭	죽간번호	죽간규격(cm)		
			길이	폭	두께
1	『폐석의론』	1-55	10~23	미상	미상
2	『맥사후』	56-105	27.6	0.8	0.1
3	『육십병방』	106-282	34.5	0.8	0.1
5	『육십병방』	303-342			
4	『척간』	283-302	22.7	1.0	0.2
6	『병원론』	343-360	27.6	0.7	0.1
	『제병증후』	361-628	35.7	0.9	0.1
	『경맥서』	629-670	30.0	0.9	0.1
『귀맥수』					
7	『오색맥장론』	671-736	15~25	0.9	0.1

\* 발견 당시 죽간들이 놓여 있던 위치(그림 3 참조)

9종의 책에는 경맥에 관한 문헌인 『맥사후(脈死候)』, 『경맥서(經脈書)』, 『귀맥수(歸脈數)』와 진단 관련 문헌 『폐석의론(敝昔醫論)』, 『역순오색맥장험정신(逆順五色脈藏驗精神)』과 병리학 관련 문헌 『제병증후(諸病症候)』, 『병원론(病源論)』, 법술에 관한 문헌 『척간(尺簡)』, 그리고 처방 관련 문헌인 『육십병방(六十病方)』이 있다<sup>5)6)</sup>. 이 중 『역순오색맥장험정신』을 제외하고는 책의 제목이 적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죽간의 내용을 바탕으로 임의로 책의 제목이 지어졌다.

죽간 서적들의 명명에 대해서는 연구기관들 간에 이견이 있다. 노관산 한대 분묘 죽간들에 대한 발굴 및 해독은 성도중의약대학(成都中醫藥大學)과 성도문물고고연구소(成都文物考古研究所)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발표된 논문 및 서적들을 보면 두 기관은 서로 다르게 죽간의 이름을 부여하였다<sup>7)</sup>.

앞서 표 1에 기재했던 서적 명칭은 성도중의약대학의 명명법을 따른 것이다. 반면에 성도문물고고연구소에서는 『척간』에만 같은 이름을 부여하였고 그 외 다른 서적들에 대해서는 다른 명명법을 사용하였다<sup>8)</sup>. ‘위치 1’의 『폐석의론』과 ‘위치 2’의 『맥사후』는 『맥서·상경(脈書·上經)』으로 명명하였다. ‘위치 3’과 ‘위치 5’의 『육십병방』은 『치육십병방화제탕법(治六十病和齊湯法)』으로 명명하였다. ‘위치 6’ 중에서 『병원론』과 『귀맥수』는 『자수(刺數)』로 명명하였다. ‘위치 6’ 중에서 『제병증후』와 『경맥서』는 『맥서·하경(脈書·下經)』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죽간의 개수 역시 두 연구기관 간에 조금 차이를 보인다. 성도중의약대학에서는 ‘M3 : 121’의 죽간 개수가 736개이고 ‘M3 : 137’의 죽간 개수가 184개로 M3 고분에서 나온 죽간의 총합이 920여개라고 발표한 데 반하여, 성도문물고고연구소에서는 ‘M3 : 121’의 죽간 개수가 730개이고 ‘M3 : 137’의 죽간 개수가 221개로 M3 고분에서 나온 죽간의 총합이 951개라고 발표하였다<sup>9)</sup>. 이는 파손된 죽간의 개수를 포함하느냐 마느냐와 원래 하나의 죽간이었을 죽간이 파손되어 발견 당시 2개의 죽간으로 죽간 번호가 매겨졌다가 연구 도중 하나의 죽간임을 알게 되어 하나의 죽간으로 합치게 되면서 발생한 차이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성도중의약대학에서 명명한 서적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M3 : 121’ 죽간들 중 죽간번호 106-282간(簡)과 303-342간에 해당하는 약 215개<sup>10)</sup>의 죽간으로

5) 《六十病方》 嬰兒口嚼湯劑與《大隅國風土記》 村民嚼米釀酒比較研究. 中醫藥文化. 2018. 13(1). pp.66-67.  
6) 周祖亮. 老官山醫簡《六十病方》藥物學成就探析. 中藥材. 2016. 39(12). p.2897.  
7) 黃龍祥. 老官山出土漢簡脈書簡解讀. 中國針灸. 2018. 38(1). p.97. “關於老官山出土文獻的研究, 從已經發表的老官山出土醫簡的研究論文和專書來看, 分歧最大的在於醫簡的命名, 成都中醫藥大學和成都文物考古研究所聯合組成的整理小組擬定的命名方案與之前公布的書名已有較大的不同, 或許釋文正式發表時還會再變.”

8) 柳長華 外 4人. 四川成都天回漢墓醫簡的命名與學術源流考. 文物. 2017. 63(12). pp.58-68.  
9) 金陵 外 7人. 四川成都天回漢墓醫簡整理簡報. 文物. 2017. 63(12). p.48.  
10) 『육십병방』의 죽간 개수 역시 발표 문헌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이는 발견 당시 죽간의 위치와 크기를 고려하여 다른 서적의 죽간으로 지정되었다가 추후에 글씨체와 문맥 상 『육십병방』의 죽간으로 판단되었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로 인해 발생한 결과이다. 2016년 발견된 서적에서는 『육십병방』에 해당하는 죽간번호가 ‘105-282, 304-309, 313-319, 320-322, 324, 327-328, 332, 337-339, 341-342, 344, 347, 351-353, 355, 360, 378, 421’라고 하였고, 죽간의 총수는 212개라고 발표하였다. (梁繁榮, 王毅, 李繼明 主編. 揭秘敝昔遺書與漆人: 老官山漢墓醫學文物文獻初識. 成都. 四川科學技術出版社. 2016. pp.114-115.)

표 2. 『육십병방』 제명간(題名簡)의 구성과 내용

제명간 번호	죽간 번호	내용			
1	276	[治風痺汗出方一]	治□(頰)山(疝)十六	治鮮(癖)卅一	治消渴卅六
2	280	[治頭二]	治女山(疝)十七	治腸已[身之]不用者卅二	治字難者卅七
3	351	治瘦三	治腸山(疝)十八		
3'	378			治傷□卅三	治女子瘦卅八
4	266	治心腹承瘦四	止內崩十九	治傷寒足清養者卅四	治風痺卅九
5	187	治腹後膏成農(膿)者五	治女子不月廿	治身□傷卅五	治內痺五十
6	186	治金傷六	治淪廿一	治過及惡(腰)傷卅六	治內風五十一
7	137	治益氣輕勁七	治黃癆廿二	治嬰[兒癩方卅七]	治傷中五十二
8	136	治風八	治石癰廿三	治臛卅八	治內崩(備)金傷赤淪五十三
9	319	治風蠱九	治寒熱欬醪廿四	治溫病卅九	治隔中五十四
10	308	止風汗十	治目多泣廿五	治傷肺卅	治內癆五十五
11	332	治風熱中十一	治白徒廿六	治風偏清卅一	治風痺初發五十六
12	324	治寒熱十二	飲消石廿七	治大伏蝟蝟卅二	治暴血血癆五十七
13	328	治上氣十三	治下氣廿八	治心腹卅三	治心暴痛五十八
14	342	治欬十四	治身大疔廿九	治逆氣卅四	治氣暴上走噎五十九
15	341	治鼠十五	治四支攣卅卅	治內消□少溺多者卅五	治泄而煩心六十

[ ] : 죽간의 훼손으로 소실된 글자이지만 맥락상 적혀 있었을 내용을 병방간에서 찾아 대괄호 안에 기입하였다.

( ) : 가차자(假借字)로 보이는 글자는 괄호 안에 현대에 사용하는 본자(本字)를 병기하였다.

□ : 해독되지 않은 글자는 네모 칸으로 대체하였다.

구성되는 『육십병방』은 한 죽간에 32~47자(字)가 적혀 약 9,000자로 이루어진 의학서적이다<sup>11)</sup>. 『육십병방』은 다른 죽간들에 비하여 보존상태가 좋았기에 초기에 해독이 완성되어 2013년부터 성도문물고고연구소와 성도중의약대학에서 『육십병방』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육십병방』은 60개의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100여개의 달하는 병증(病症), 106개의 처방, 8개의 처방 제형, 197종의 약제들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sup>12)13)14)15)</sup>.

『육십병방』의 구성 방식을 보면 15개의 제명간(題名簡)이라 부르는 죽간들이 목록을 이루고, 약 200개의 병방간(病方簡)이라 부르는 죽간들이 본문을 이루고 있다<sup>16)</sup>. 제명간은 표 2와 같이 죽간 하나에 4개의 병명이 번호와 함께 적혀 있어서, 15개의 죽간에 총 60개의 병명이 수록되어 있고 이는 책 전체에 대해 목차의 역할을 하고 있다<sup>17)18)</sup>. 제명간에 해당하는 죽간들을 발견 당시 이 죽간들에게

劑型考辨. 中醫藥文化. 2016. 31(1). pp.7-14.

11) 和中浚 外 4人. 老官山漢墓《六十病方》與馬王堆《五十二病方》比較研究. 中醫藥文化. 2015. 30(4). p.23.

12) 『육십병방』의 조항별 집계 결과 역시 발표 문헌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각 조항에 대하여 더 최근에, 더 많은 개수로 발표된 논문을 기준으로 하였다.

13) 周祖亮. 老官山醫簡《六十病方》藥物學成就探析. 中藥材. 2016. 39(12). p.2897.

14) 劉興隆 外 3人. 成都老官山漢墓出土醫簡《六十病方》方劑

15) 柳長華 外 4人. 四川成都天回漢墓醫簡的命名與學術源流考. 文物. 2017. 63(12). p.61.

16) 和中浚 外 5人. 老官山漢墓醫簡《六十病方》體例初考. 中醫文獻雜誌. 2015. 22(3). pp.1-5.

17) 梁繁榮, 王毅, 李繼明 主編. 揭秘散佚遺書與漆人: 老官山漢墓醫學文物文獻初識. 成都. 四川科學技術出版社. 2016. pp. 120-121.

18) 袁開惠 外 3人. 老官山漢墓醫簡《六十病方》病名釋難. 古籍整理研究學刊. 2018. 34(4). pp.1-7.

매겨졌던 죽간번호의 순서대로 읽는다면 내용이 무질서해 보이지만, 저작 당시에는 제명간 번호의 순서대로 죽간이 배열되어 있었을 것이며, 책의 목차로 기능하기 위해 책의 제일 앞에 배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15개의 죽간을 제명간 순서로 나열하여 읽어보면 60개의 처방이 순서대로 적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문헌이 60개의 처방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중의약대학에서는 이 문헌의 이름을 『육십병방』으로, 성도문물고고연구소에서는 『치육십병방화제탕법』이라고 명명한 것으로 보인다. 제명간 1번과 2번의 경우 맨 앞의 열(列)에 기입되었어야 할 글자들이 소실되었으나 본문의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볼 때 본래 적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병명의 내용을 대괄호 안에 적어 제명간의 내용을 완성하였다. 제명간 3번의 경우 죽간이 파손되어 351간과 378간 2개의 죽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병명 번호로 유추해 보면 별도의 죽간이 아니라 원래 제명간 3번으로, 하나의 죽간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노관산 한대 분묘 출토 문물의 매장 시기가 전한(前漢) 경제(景帝)에서 무제(武帝) 사이로 대략 기원전 157년에서 기원전 87년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육십병방』의 저작 시기는 아마도 전한(前漢) 시기 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육십병방』은, 기원전 168년에 매장되어 그 성서(成書) 연대가 선진(先秦) 시기에서 전한(前漢) 초기일 것으로 알려진, 마왕퇴의서 중 하나인 『오십이병방(五十二病方)』 보다는 후대에 저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기원전 102년에서 서기 30년 사이에 저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연한간(居延漢簡)』이나 후한(後漢) 전기에 저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위한대의간(武威漢代醫簡)』 보다는 앞선 시대에 저작되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sup>19)20)21)</sup>. 그런 점에서 『육십병방』은 『오십이병방』과 『거연한간』, 『무위한대의간』 사이의 약 300년 간의 간극을 메워 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전한(前漢) 시기의 의학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육십병방』을 포함한 노관산 한대 분묘 죽간들의 원문 전체는 현재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기에,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육십병방』이나 다른 노관산 의서들에 대해서는 이를 대상으로 한 전체연구(專題研究) 결과가 없다. 상한방(傷寒方) 관련 연구에서 『육십병방』에 대한 관심을 내비치거나<sup>22)</sup>, 편자 관련 연구에서 노관산 출토 의서들에 대한 궁급증만을 내비치고 있는 실정이다<sup>23)</sup>.

이에 저자들은 『육십병방』의 원문을 수집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발표된 『육십병방』에 관한 논문들을 검색하고, 논문에서 원문을 인용한 부분들을 찾아서 자체적으로 원문을 수집하였다. 『육십병방』의 원문이 실려 있는 논문을 검색하기 위하여 중국지망(中國知網, <https://www.cnki.net>), 구글(<https://www.google.co.kr>), 바이두(百度, <http://www.baidu.com>)에서 검색어 ‘六十病方’, ‘老官山’을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수집한 원문을 바탕으로 『육십병방』을 살펴본 결과, 『육십병방』은 처방서이지만 한의학 기초이론에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육십병방』에는 기(氣), 혈(血), 본초 귀경(歸經)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육십병방』의 저자가 가지고 있었던 인체의 생리 및 병리에 대한 지식과 당시 의학의 학술적 수준에 대하여 연구하여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 II. 본론

### 1. 원문 수집 및 병방간 정리

일본의 이카이 요시오(猪飼祥夫)는 『육십병방』의 일부 원문을 수집하여 2016년 발표한 논문<sup>24)</sup>의 부

19) 廖育群, 傅芳, 鄧金生 著. 박현국, 김기욱, 이병욱 共譯. 中國科學技術史·醫學篇. 서울. 일지사. 2007. p.156.  
20) 하기태, 정한술, 신상우. 居延漢簡과 傷寒論의 病症 비교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1. 25(1). p.19.  
21) 아마다 케이지 著. 윤석희 박상영 共譯. 中國의학의 기원. 경기도. 수퍼노바. 2016. p.145.

22) 이경. 중국 출토문헌에 보이는 傷寒方의 문자학적 분석.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9. 32(3). p.28.  
23) 방민우, 김기욱. 扁鵲脈法에 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7. 30(3). pp.143-144.  
24) 猪飼祥夫. 四川成都老官山の醫學資料概觀(下). 漢方の臨床. 2016. 63(4). pp.550-553.

록에 실었다. 『육십병방』의 전문(全文)은 전체 213간, 총 글자 수가 약 9,000자(字)로 구성되는데 그 중 67간에 대한 원문이 죽간 전체 또는 죽간 일부의 내용으로서 이 논문의 부록에 실려 있었고, 여기에 실린 원문의 글자 수는 1,525자로 전체 분량 중 약 17%였다. 이 원문들은 그 이전까지 성도에서 발표된 논문들에 실린 원문들을 수집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그보다 많은 원문들을 수집하였는데, 2019년까지 발표된 논문들<sup>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sup>을 통

하여 전체 213간 중 151간에 대해 죽간 전체의 내용 또는 죽간 일부의 내용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원문의 글자 수는 총 4,084자이며, 이는 『육십병방』의 전체 분량 중 약 45%에 해당한다. 수집한 원문의 내용은 죽간 번호에 따라 정리하여 본 논문의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육십병방』은 소위 ‘제명간(題名簡)’ 15개가 목차를 이루고, 그 뒤에 목차에 따라 200개의 본문 죽간, 즉 ‘병방간(病方簡)’이 존재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제명간의 경우 기존에 발표된 논문 및 서적에서 이미 구성을 밝혀 놓았으나(표 2), 병방간은 아직 완전히 공개된 적이 없다. 이에 저자들은 수집한 원문들 중에서 병방간 번호가 알려진 원문들만이라도 그 원문을 재현하여 부록에 수록함으로써 불완전하지만 『육십병방』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부록에 수록한, 죽간 번호에 따른 원문과 병방번호에 따른 원문의 기입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을 따랐다.

- 1) □ : 해독되지 않은 한 글자의 경우 네모 칸으로 대체하였다.
- 2) … : 해독되지 않았거나, 해독되었을지라도 참고문헌에서 기재하지 않은 원문의 글자가 두 글자 이상일 경우 세 개의 점으로 대체하였다.
- 3) ( ) : 의미가 모호할 수 있는 원문의 옛 글자의 경우 괄호 안에 현대에 사용하는 글자를 기입하였다.
- 4) [] : 문맥을 통해 생각된 글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 이를 대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 5) 둘 이상의 참고문헌에서 수집한 원문은 내용이 동일할 경우 하나만 남겨두었다. 내용이 비슷하지만 다른 글자가 있을 경우엔 문맥상 의미 전달이 명확한 원문을 선택하였고, 의미를 알 수 없는 경우 참고한 원문들을 모두 기재하였다.
- 6) 둘 이상의 죽간의 원문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는 경우 연관 죽간 번호를 따로 기재하였다.
- 7) 현재에 사용하지 않아 기입이 안 되는 글자의

25) 趙懷舟 外 4人. 《六十病方》地名略考. 中醫藥文化. 2015. 30(4). pp.35-40.  
 26) 和中凌 外 4人. 老官山漢墓《六十病方》與馬王堆《五十二病方》比較研究. 中醫藥文化. 2015. 30(4). pp.22-34  
 27) 和中凌 外 5人. 老官山漢墓醫簡《六十病方》排序研究. 中醫文獻雜誌. 2015. 22(4). pp.1-4.  
 28) 和中凌 外 5人. 老官山漢墓醫簡《六十病方》排序研究(續完). 中醫文獻雜誌. 2015. 22(5). pp.1-6.  
 29) 和中凌 外 5人. 老官山漢墓醫簡《六十病方》體例初考. 中醫文獻雜誌. 2015. 22(3). pp.1-5.  
 30) 趙懷舟 外 4人. 成都老官山漢墓《六十病方》和《武威漢代醫簡》的比較研究. 中醫藥文化. 2015. 30(5). pp.4-9.  
 31) 劉興隆 外 3人. 成都老官山漢墓出土醫簡《六十病方》方劑劑型考辨. 中醫藥文化. 2016. 31(1). pp.4-14.  
 32) 周祖亮. 老官山醫簡《六十病方》藥物學成就探析. 中藥材. 2016. 39(12). pp.2897-2901.  
 33) 梁繁榮, 王毅, 李繼明 主編. 揭秘帛書遺書與漆人: 老官山漢墓醫學文物文獻初識. 成都. 四川科學技術出版社. 2016. pp.117-178.  
 34) 王一童, 王麗, 李繼明. 成都老官山漢墓出土醫簡標識符號析義. 中醫藥文化. 2016. 31(1). pp.15-18.  
 35) 和中凌 外 3人. 論老官山漢墓醫簡《六十病方》的“鼠”與“風偏清”. 中醫藥文化. 2017. 32(6). pp.4-7.  
 36) 金陵 外 7人. 四川成都天回漢墓醫簡整理簡報. 文物. 2017. 63(12). p.56.  
 37) 王一童, 李繼明, 賈波. 老官山醫簡《六十病方》治消渴諸方組方用藥特點探析. 中華中醫藥雜誌. 2018. 33(5). pp.1785-1787.  
 38) 《六十病方》嬰兒口嚼湯劑與《大輿國風土記》村民嚼米釀酒比較研究. 中醫藥文化. 2018. 13(1). pp.66-70.  
 39) 袁開惠 外 3人. 老官山漢墓醫簡《六十病方》病名釋難. 古籍整理研究學刊. 2018. 34(4). pp.1-7.  
 40) 陳星. 老官山漢墓醫簡外治法研究. 成都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pp.11-26.  
 41) 王一童 5人. 桂芍栝實湯配伍原理及源流初探. 現代中醫藥. 2019. 39(4). pp.111-112.  
 42) 周祖亮, 方懿林. 試論帛書醫書相似方藥文獻的淵源與流傳.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19. 26(4). p.286.  
 43) 張如青, 馬王堆《五十二病方》與老官山《六十病方》“沸”

字考辨—兼論古代一種特殊煎藥法. 中醫藥文化. 2019. 34(5). pp.68-70.

경우 사진 형태로 기입하였다.

## 2. 병증(病症)을 통해 살펴본 생리·병리학적 의학 수준

### 1) 기(氣)에 관한 내용

기의 개념이 의학 관련 문헌에서 사용된 유례를 살펴보면, 마왕퇴의서(馬王堆醫書) 『오십이병방(五十二病方)』에는 기에 관한 병증이 병방명(病方名)으로서 나타나지는 않고<sup>44)</sup>, ‘기휴(저)(氣腫(疽))’<sup>46)</sup>, ‘한기(寒氣)’<sup>47)</sup>와 같이 단순 증상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왕퇴의서 『음양십일맥구경(陰陽十一脈灸經)』에서는 소음맥의 시동병(是動病)에 ‘상기(上氣)’<sup>48)</sup>, ‘기부족(氣不足)’<sup>49)</sup>이 등장하는데, 단순한 증상명에서 조금 더 나아가 기부족이라는 기허(氣虛)의 병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방서인 『오십이병방』에서 기라는 글자가 질병 양상에 대한 증상 명칭 위주로 사용된 반면, 침구의학 서적인 『음양십일맥구경』에서는 조금 더 의학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대략 200년 뒤인 후한시대에 접어들어 기에 관한 병증명이 약물 위주의 의학서적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무위한대의간(武威漢代醫簡)』에는 ‘한기(寒氣)’<sup>50)</sup>, ‘상기(上氣)’<sup>51)</sup>, ‘역상기(逆上氣)’<sup>52)</sup>가 나타나고, 『거연한간(居延漢簡)』에는 ‘기상(氣上)’<sup>53)</sup>,

‘단기(短氣)’<sup>54)</sup>가 나타난다. 『무위한대의간』과 『거연한간』이 지어진 후한 초기에는 약물 위주의 의학 서적에서도 치료 대상이 되는 질병의 양상을 인체 내 기(氣)의 이상으로 기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학 이론은 침구 요법에서 먼저 형성되고 이후 약물 요법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 야마다 케이지(山田慶兒)의 주장인데<sup>55)</sup>, 실제 기 개념이 의학적 개념으로 의서에 나타난 시기를 보면 약물 요법을 위한 서적에서 더 후대에 나타났다는 것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무위한대의간』과 『거연한간』보다 이른 시기의 서적인 『육십병방』에 기 개념이 병증명으로 사용되고 있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빠르게 기 개념이 의학적 개념으로 약물 치료 서적에 등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육십병방』에는 ‘기폭상(氣暴上)’<sup>56)</sup><sup>57)</sup><sup>58)</sup><sup>59)</sup>, ‘익기경경(益氣輕勁)’<sup>60)</sup>, ‘역기(逆氣)’<sup>61)</sup><sup>62)</sup>, ‘하기(下氣)’<sup>63)</sup>,

44) 김명숙, 김경철, 이용태. 五十二病方の 研究. 東醫生理學會誌. 1999. 14(1). pp.69-74.

45) 장용훈, 김용진. 馬王堆醫書에 나타난 病因·病機 및 病證에 關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1999. 12(1). pp.64-89.

46) 裘錫圭 主編. 長沙馬王堆漢墓簡帛集成(伍). 北京. 中華書局. 2014. p.269.

47) 裘錫圭 主編. 長沙馬王堆漢墓簡帛集成(伍). 北京. 中華書局. 2014. p.222.

48) 裘錫圭 主編. 長沙馬王堆漢墓簡帛集成(伍). 北京. 中華書局. 2014. p.202.

49) 裘錫圭 主編. 長沙馬王堆漢墓簡帛集成(伍). 北京. 中華書局. 2014. p.202.

50) 張延昌 主編. 武威漢代醫簡注解.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6. p.9.

51) 張延昌 主編. 武威漢代醫簡注解.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6. p.29.

52) 張延昌 主編. 武威漢代醫簡注解.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6. p.29.

53) 하기태, 정한술, 신상우. 居延漢簡과 傷寒論의 病症 비교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1. 25(1). p.21.

54) 하기태, 정한술, 신상우. 居延漢簡과 傷寒論의 病症 비교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1. 25(1). p.21.

55) 야마다 케이지 著. 윤석희 박상영 共譯. 중국의학의 기원. 경기도. 수퍼노바. 2016. p.11.

56) 袁開惠 外 3人. 老官山漢墓醫簡《六十病方》病名釋難. 古籍整理研究學刊. 2018. 34(4). p.3. “治心腹季痕, 字餘病, 少腹痛, 此皆有積, 案(按)之應手, 方(妨)食, 及暴血在心腹, 及氣暴上腹, 盈放(妨)息者(117)”

57) 趙懷舟 外 4人. 《六十病方》地名略考. 中醫藥文化. 2015. 30(4). p.35. “其病氣暴上腹盈痛放(妨)息者. 已試廢丘蒼里大夫口口, 吞二完, 病已. 其病當心脉。(201)”

58) 梁繁榮, 王毅, 李繼明 主編. 揭秘敝昔遺書與漆人: 老官山漢墓醫學文物文獻初識. 成都. 四川科學技術出版社. 2016. p.143,154,165,166. “治氣暴上走噎 …… 安炊 …… 爲一斗 …… 半夏 …… 降氣(236)”

59) 和中渡 外 5人. 老官山漢墓醫簡《六十病方》體例初考. 中醫文獻雜誌. 2015. 22(3). p.4. “治風痺口 … 暴血, 氣暴上腹盈痛方息者. 壹倉藥病已, 病已三日而復故。(278)”

60) 和中渡 外 5人. 老官山漢墓醫簡《六十病方》體例初考. 中醫文獻雜誌. 2015. 22(3). p.4. “• 治益氣口脆腸, 則各一分, 犁如, 牛膝, 卑挈, 山朱史, 桔梗, 圭, 蜀椒, 白芷, 細辛各二分。(120)”

61) 和中渡 外 4人. 老官山漢墓《六十病方》與馬王堆《五十二病方》比較研究. 中醫藥文化. 2015. 30(4). p.32. “… 稍益, 以知爲濟, 可治咳, 逆氣(153)”

62) 王一童, 王麗, 李繼明. 成都老官山漢墓出土醫簡標識符號析義. 中醫藥文化. 2016. 31(1). pp.17-18. “• 冊四治逆氣

‘상기(上氣)<sup>64</sup>와 같은 기에 관한 병증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최소한 전한 시기 이전부터 당시의 의사들은 약물 치료의 대상을 단지 증상으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인체의 병리 상황을 추론하는 데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학적인 기의 개념은 중경(仲景)의 『상한론(傷寒論)』에 이르러 ‘기상충(氣上衝)’, ‘단기(短氣)’, ‘소기(少氣)’, ‘애기(噫氣)’, ‘기불통(氣不通)’, ‘기역(氣逆)’, ‘위기(衛氣)’, ‘영기(營氣)’, ‘곡기(穀氣)’, ‘위기(胃氣)’, ‘음양기(陰陽氣)’, ‘사기(邪氣)’, ‘객기(客氣)’, ‘실기(失氣)’, ‘수기(水氣)’, ‘화기(火氣)’, ‘열기(熱氣)’, ‘외기(外氣)’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sup>65</sup>.

## 2) 혈(血)에 관한 내용

마왕퇴에서 『오십이병방』에는 혈(血)에 관한 내용으로 단순히 눈에 보이는 피를 의미하는 ‘출혈(出血)<sup>66</sup>, ‘혈출(血出)<sup>67</sup>68), ‘유혈(有血)<sup>69</sup>, ‘견혈(堅血)<sup>70</sup>이 나타나며, 병증명으로는 ‘혈휴(저)(血腫(疽))<sup>71</sup>, ‘혈릉(血瘰)<sup>72</sup>, ‘혈치(血痔)<sup>73</sup>가 등장한

다. 이후 후한시대 서적인 『무위한대의간』에서도 비슷하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피를 의미하는 ‘출혈(出血)<sup>74</sup>이 나타나고, 병증명으로는 ‘대변혈(大便血)<sup>75</sup>, ‘장벽와혈(腸辟臥血)<sup>76</sup>, ‘누혈(漏血)<sup>77</sup>, ‘혈릉(血瘰)<sup>78</sup>이 나타난다. 시기적으로 두 서적 사이에 저작된 『육십병방』에는 ‘폭혈(暴血)<sup>79</sup>80), ‘노혈(弱(溺)血)<sup>81</sup>, ‘혈폭발(血暴發)<sup>82</sup>, ‘혈비(血痺)<sup>83</sup>가 나타난다.

어혈(瘀血)에 관하여 살펴보면 마왕퇴에서 『오십이병방』, 『음양십일맥구경』, 『족비십일맥구경(足臂十一脈灸經)』에서 어(瘀)라는 글자는 등장하지 않지만<sup>84</sup>85), 『오십이병방』에 응혈(凝血)의 의미를 가진

屑蜀椒四、薑二、桂、烏喙、桔梗各一 … (219)”

63) 和中凌 外 4人. 老官山漢墓《六十病方》與馬王堆《五十二病方》比較研究. 中醫藥文化. 2015. 30(4). p.25. “廿八治下氣。取白昌根七尺, 圭尺, 薊一果。并治, 三指撮, 每旦食。白昌, 一名曰三白。(189)”

64) 劉興隆 外 3人. 成都老官山漢墓出土醫簡《六十病方》方劑劑型考辨. 中醫藥文化. 2016. 31(1). p.13. “十三治上氣。美酒二斗半, 梓飴半斗, 棗半斗, 苾菟五并, 圭(桂)二尺, 薑五果(顆), 菴煎脂半升。父且, 段其圭(桂)(318)”

65) 張機. 桂林古本傷寒雜病論.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66) 裘錫圭 主編. 長沙馬王堆漢墓簡帛集成(伍). 北京, 中華書局. 2014. p.262.

67) 裘錫圭 主編. 長沙馬王堆漢墓簡帛集成(伍). 北京, 中華書局. 2014. p.217.

68) 裘錫圭 主編. 長沙馬王堆漢墓簡帛集成(伍). 北京, 中華書局. 2014. p.262.

69) 裘錫圭 主編. 長沙馬王堆漢墓簡帛集成(伍). 北京, 中華書局. 2014. p.224.

70) 裘錫圭 主編. 長沙馬王堆漢墓簡帛集成(伍). 北京, 中華書局. 2014. p.261.

71) 裘錫圭 主編. 長沙馬王堆漢墓簡帛集成(伍). 北京, 中華書局. 2014. p.269.

72) 裘錫圭 主編. 長沙馬王堆漢墓簡帛集成(伍). 北京, 中華書局. 2014. p.250.

73) 裘錫圭 主編. 長沙馬王堆漢墓簡帛集成(伍). 北京, 中華書

局. 2014. p.264.

74) 張延昌 主編. 武威漢代醫簡注解.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6. p.7.

75) 張延昌 主編. 武威漢代醫簡注解.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6. p.9.

76) 張延昌 主編. 武威漢代醫簡注解.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6. p.31.

77) 張延昌 主編. 武威漢代醫簡注解.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6. p.19.

78) 張延昌 主編. 武威漢代醫簡注解.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6. p.7.

79) 袁開惠 外 3人. 老官山漢墓醫簡《六十病方》病名釋難. 古籍整理研究學刊. 2018. 34(4). p.3. “治心腹季痕, 字餘病、少腹痛, 此皆有積, 案(按)之應手, 方(妨)食, 及暴血在心腹, 及氣暴上腹, 盈放(妨)息者(117)”

80) 和中凌 外 5人. 老官山漢墓醫簡《六十病方》體例初考. 中醫文獻雜誌. 2015. 22(3). p.4. “治風癆口 … 暴血, 氣暴上腹盈痛方息者。壹倉藥病已, 病已三日而復故。(278)”

81) 周祖亮. 老官山醫簡《六十病方》藥物學成就探析. 中藥材. 2016. 39(12). p.2898. “治女子淪及內備(崩)及弱(溺)血者: 取穀三把, 以淳酒一斗, 三乃煮之, 孰(熟), 液而食(飲)其汁. 已嘗試. 毋禁. 精(144)”

82) 王一童 王麗 李繼明. 成都老官山漢墓出土醫簡標識符號析義. 中醫藥文化. 2016. 31(1). pp.17-18. “五十七 治血暴發者 屑土瓜二, 牡荊, 茵圭(桂)各一, 取一籥(籥), 溫美酒半升, 莫母食, 旦食(飲)之, 日一, 五日已. 禁。(246)”

83) 梁繁榮, 王毅, 李繼明 主編. 揭秘藏昔遺書與漆人: 老官山漢墓醫學文獻初識. 成都. 四川科學技術出版社. 2016. p.132. “治血痺. 屑白藪, 勻(芍)藥, 節華, 薑, 圭(桂), 小栝, 朱萸等并合, 取三撮, 入美酒一升中, 先舖食倉之, 日三. 三日知, 五日已(249)”

84) 김명숙, 김경철, 이용태. 五十二病方の 研究. 東醫生理學會誌. 1999. 14(1). pp.69-74.

85) 장용훈 김용진. 馬王堆醫書에 나타난 病因·病機 및 病證에 관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1999. 12(1). pp.64-89.

표 3. 『육십병방』과 『육십병방』 전후로 저작된 의서에 기록된 기와 혈에 대한 병증명

	『오십이병방』	『육십병방』	『무위한대의간』	『거연한간』
기(氣)	기저(氣疽) 한기(寒氣)	기폭상(氣暴上) 익기경경(益氣輕勁) 역기(逆氣) 하기(下氣) 상기(上氣)	한기(寒氣) 상기(上氣) 역상기(逆上氣)	기상(氣上) 단기(短氣)
혈(血)	혈저(血疽) 혈릉(血瘡) 혈치(血痔)	폭혈(暴血) 노혈(溺血) 혈폭발(血暴發) 혈비(血痺)	혈릉(血瘡) 대변혈(大便血) 장벽와혈(腸辟臥血) 누혈(漏血)	
어혈(瘀血)	배혈(衄血)	내어(內瘀)	어(瘀)	

‘암(배)혈(臍(衄)血)’<sup>86)</sup>이라는 병증명이 나타나고 있어 어혈의 의미가 들어있는 글자가 확인된다. 이후 『무위한대의간』에서 ‘어(瘀)’라는 글자가 등장하며, 관련 처방의 약물에 당귀(當歸), 천궁(川芎), 목단피(牡丹), 맹충(蠱蟲) 등이 포함되어 어혈을 지시하는 용어와 치료 수단이 나타난다<sup>87)</sup>. ‘어(瘀)’라는 글자는 전국시대부터 등장했으나<sup>88)</sup>, 현존하는 의서 중에 어혈 개념의 병증을 치료하는 약물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타난 것은 『무위한대의간』이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어혈의 개념이 『육십병방』에서도 ‘내어(內瘀)’<sup>89)</sup>라는 병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소 전한시기에는 어혈의 개념과 용어가 당시의 의사에 의해 기록되었고, 그것을 치료하는 약물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혈의 개념은 그 이후 계속 발전하게 되는데 장중경의 『상한론』에 처음 어혈(瘀血)이란 병증명이 등장하고<sup>90)</sup>,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시대의 저작인

도홍경(陶弘景)의 『명의별록(名醫別錄)』은 어혈이 병인의 하나로서 작용하여 여러 병증을 유발시킨다고 기록하여 어혈의 개념을 더욱 확장시켰다<sup>91)</sup>.

『육십병방』과 『육십병방』 이전과 이후에 저작된 의서에 나타난, 기와 혈에 대한 병증명의 변화를 표 3에 정리하였다.

### 3. 약재의 주치 부위 및 조직

『육십병방』에는 본초가 주치하는 인체 부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단삼(丹參)은 가슴을 관장하고, 사삼(沙參)은 배를 관장하고, 고삼(苦參)은 옆구리를 관장하고, 현삼(玄參)은 장(腸)을 관장하고, 자삼(紫參)은 심(心)을 관장하고, 작약(芍藥)은 아랫배(少腹)를 관장한다.<sup>92)</sup>

86) 裘錫圭 主編. 長沙馬王堆漢墓簡帛集成(伍). 北京. 中華書局. 2014. pp.224-225.

87) 張延昌 主編. 武威漢代醫簡注解.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6. p.7.

88) 전병훈, 우원홍, 정우열. 瘀血의 概念에 關한 東醫學的 考察. 동의병리학회지. 1989. 4(1). p.93

89) 和中浚 外 4人. 老官山漢墓《六十病方》與馬王堆《五十二病方》比較研究. 中醫藥文化. 2015. 30(4). p.29. “治內瘀, 取生地黃口之半斗, 以醇酒三斗沃, 稍溫食之(222)”

90) 張機. 桂林古本傷寒雜病論.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91) 이병욱, 김은하, 박종현. 名醫別錄의 病理學史에 關한 研究. 동서의학. 2000. 25(4). pp.69-70.

92) 周祖亮. 老官山醫簡《六十病方》藥物學成就探析. 中藥材. 2016. 39(12). p.2900. “其病在腹中者, 丹參主胸(胸), 莎(沙)參主腹, 苦參主脇, 玄參主腸, 苴(紫)參主心, 芍(芍)藥主少腹, 病所在即倍其藥.(157-160)”

표 4. 『육십병방』, 『신농본초경』, 『명의별록』에 나타나는 약제의 치료 부위에 관한 기술

약제	『육십병방』	『신농본초경』	『명의별록』
단삼	主胸	主心腹邪氣	去心腹痼疾
사삼	主腹	補中, 益肺氣	主治胃瘕, 心腹痛 … 頭痛, 皮間邪熱, 安五臟, 補中
고삼	主脇	主心腹結氣 … 補中明目	養肝膽氣, 安五臟 … 腸 … 下部隱, 平胃氣
현삼	主腸	主腹中寒熱積聚 … 補腎氣, 令人目明	除胸中氣 … 散頸下核, 心腹痛 … 定五臟
자삼	主心	主心腹積聚 … 通九竅, 利大小便	主治腸胃大熱 … 腸中聚血
작약	主少腹	主邪氣腹痛	緩中 … 利膀胱, 大小腸 … 腹痛, 腰痛
천궁	主筋	主中風入腦, 頭痛 … 筋攣緩急	主除腦中冷動, 面上遊風去來, 目淚出 … 心腹痛 … 卒急腫痛, 脇風痛
황지(黃脂)	主脂		
백렴	主骨	目中赤 … 女子陰中腫痛	

천궁(=궁궁, 弓窮)은 근(筋)을 관장하고, 황지(黃脂)<sup>93)</sup>는 지방을 관장하고, 백렴(白藪)은 뼈를 관장한다.<sup>94)</sup>

종래에 알려진 의서 가운데 약제의 주치 및 작용을 인체의 장부 및 부위와 연관지어 기술한 최초의 문헌은 서기 1세기 경에 저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으로서, 예를 들어 ‘보중, 익폐기(補中, 益肺氣)’라는 표현<sup>95)</sup>이 출현한다. 이후 『명의별록(名醫別錄)』에서 귀경(歸經)과 유사한 개념으로 ‘귀비(歸鼻)’, ‘귀목(歸目)’, ‘귀골(歸骨)’ 같은 표현<sup>96)</sup>이 출현하였다<sup>97)98)99)</sup>. 하지만 『육십병방』의

저작 시기를 기원전 157년~기원전 87년으로 추정한다면 약제의 주치 및 작용을 인체의 장부 및 신체 부위와 연관시켜 기술한 최초의 문헌은 『육십병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 언급된 약제에 대하여 『육십병방』, 『신농본초경』<sup>100)</sup>, 『명의별록』<sup>101)</sup>에 기술된 내용을 비교해 보았다(표 4).

단삼은 『육십병방』에서 “가슴을 관장한다[主胸]”고 하였는데 『신농본초경』과 『명의별록』에서도 “심복(心腹)”의 증상을 치료한다고 하여 단삼의 치료 부위에 대한 기술이 각 서적들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삼은 『육십병방』에서 “배를 관장한다[主腹]”고 하였는데 『신농본초경』에서는 중초(“中”), 폐, 『명의별록』에서는 위(胃), 심복(心腹), 두(頭), 피(皮), 오장과 중초에 작용한다고 하여 사삼의 치료

93) 黃脂의 경우 어떤 약물인지 기원을 확인할 수 없었음.

94) 和中發外 4人. 老官山漢墓《六十病方》與馬王堆《五十二病方》比較研究. 中醫藥文化. 2015. 30(4). p.29. “弓窮主筋, 黃脂主脂, 白藪主骨, 病所在, 負其藥(258)”

95) 作者未詳. 神農本草經.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補中, 益肺氣”

96) 陶弘景. 名醫別錄.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歸鼻”, “歸目”, “歸骨”

97) 이영중, 윤창열. 귀경론 연구. 1989. 대한한의학회지.

10(1) : pp.256-267.

98) 안상우. 본초서의 계통과 본초학 발전사. 2005. 한국한의학회지. 11(1) : pp.19-32.

99) 오창영, 윤창열. 『本草綱目』에 나타난 『神農本草經』과 南北朝 以前の 本草書에 대한 研究

100) 作者未詳. 神農本草經.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101) 陶弘景. 名醫別錄.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부위에 대한 기술은 서적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보면 흉·복부로 수렴하고 있었다. 고삼은 『육십병방』에서 “옆구리를 관장한다[主脇]”고 하였는데, 『신농본초경』에서는 심복(心腹), 중초, 눈 등을 주치 부위로 언급하여 연관 관계가 보이지 않지만 『명의별록』에서는 간담(肝膽), 오장(五臟), 장(腸), 신체 하부와 위(胃)를 주치 부위로 언급하여 간담을 주치 부위로 지목한 것이 주목된다. 현삼은 『육십병방』에서 “장(腸)을 관장한다[主腸]”고 하였는데, 『신농본초경』에서는 배와 신장, 눈을 주치 부위로, 『명의별록』에서는 가슴[胸中], 목[頸], 심복(心腹)을 주치 부위로 기록하여 현삼의 치료 부위에 대한 기술은 서적마다 달랐으나 복부에 대해서는 모두 기술하고 있었다. 자삼은 『육십병방』에서 “심장을 관장한다[主心]”고 하였는데, 『신농본초경』에서는 심복(心腹), 구구(九竅) 등을, 『명의별록』에서는 장(腸), 위(胃)를 주치 부위로 언급하여 자삼의 치료 부위에 대한 기술은 서적마다 차이를 보였다. 다만 『육십병방』과 『신농본초경』에서는 심장 부위를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이 확인된다. 작약은 『육십병방』에서 “아랫배를 관장한다[主少腹]”고 하였는데, 『신농본초경』에서는 배[腹]를, 『명의별록』에서는 중초와 방광, 대장, 소장, 배[腹], 허리[腰]를 주치 부위로 언급하여 세 문헌에서 복부를 치료 부위로 언급한 것이 확인된다. 천궁은 『육십병방』에서 “근을 관장한다[主筋]”고 하였는데, 『신농본초경』에서 뇌(腦), 머리[頭]와 함께 근(筋)을 치료 부위로 언급한 것이 확인된다. 『명의별록』에서는 뇌, 얼굴[面], 눈[目], 심복(心腹), 옆구리[脇]를 치료 부위로 언급하여 근 자체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갑작스러운 수축[卒急]을 언급하여 근의 증상을 말하고 있다. 황지(黃脂)는 『육십병방』에서 “지방을 관장한다”고 하였는데, 황지가 어떤 약제인지 확인할 수 없었기에 다른 서적에서 황지에 대한 기술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백렴(白蘘)은 『육십병방』에서 “뼈를 관장한다[主骨]”고 하였는데 『신농본초경』의 주치 설명과 비교하면 치료 부위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었고 『명의별록』에서는 백렴에 대한 기술이 없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한약의 귀경학설(歸經學說)이 성립되기 전, 약

재의 주치 부위에 대한 기술은 비정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다소의 공통점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른 시기의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육십병방』은 약재의 주치 부위를 하나의 부위로 한정하여 제시함으로써 훗날 정립되는 귀경학설의 원형을 보여주었다.

요컨대, 개별 약재의 주치 및 작용을 인체의 장부 및 부위와 연관시켜 기술한 최초의 문헌은 『육십병방』이라고 할 수 있다.

### III.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육십병방』의 원문 전체는 현재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기에, 저자들은 현재까지 발표된 『육십병방』에 관한 논문들을 검색하고 논문에서 원문을 인용한 부분들을 찾아서 자체적으로 원문을 수집하였다. 그 결과 전체 213간 중 151간에 대한 죽간 전체의 내용 또는 죽간 일부의 내용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원문의 글자수는 총 4,084자이며, 이는 『육십병방』의 전체 분량 중에 약 45%에 해당한다.
2. 『육십병방』에서는 단지 증상명으로서 기(氣)의 이상이 묘사되었을 뿐 아니라 인체의 병리 상황을 설명하는 데 기 개념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현존하는 의서 중에 어혈의 진단명과 치료 방법이 수록된 최초의 문헌은 후한 초기의 『무위한대의간』이라 볼 수 있었으나 『육십병방』에서도 ‘내어(內瘀)’라는 어혈의 병증명과 그에 대한 치료 약제 및 처방이 등장하여 전한 시기에도 어혈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이론이 성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4. 『육십병방』에는 약재가 주치하는 인체 부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이를 통해 『육십병방』에서 약재를 단지 주치증과의 대응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약재를 병위(病位)와 연결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래에는, 약재의 주치를 인체의 장부 및 부위와 연관시켜 기술하여 분초 귀

경학설의 기원이 되는 최초의 문헌으로서 서기 1세기 경 저작된 『신농본초경』이 알려져 있었지만, 귀경학설의 원형을 더 이른 시기에 좀 더 명확한 형태로 소개한 서적이 『육십병방』이라고 할 수 있다.

노관산 출토문헌들은 전한시대의 의학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특히 일부는 편작학파의 저작으로 생각되기에 더욱 관심이 높은데(102)103), 심지어 성도문물고고연구소에서 발표된 논문에서는 노관산 의서의 이름을 『사기·편작창공열전』에 등장하는 『맥서·상경』, 『맥서·하경』으로 명명하기도 하였다(104). 하지만 발굴된 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원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본 연구는 그 안타까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공개된 논문들을 통하여 『육십병방』의 원문을 재구성해 보았고, 재구성한 원문을 통해 『육십병방』의 저자가 가지고 있었던 인체의 생리 및 병리에 대한 이해와 배경 이론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국내에도 노관산 의서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1. 葛敬生, 周興蘭, 趙懷舟. 《六十病方》嬰兒口嚼湯劑與《大隅國風土記》村民嚼米釀酒比較研究. 中醫藥文化. 2018. 13(1).
2. 裘錫圭 主編. 長沙馬王堆漢墓簡帛集成(伍). 北京. 中華書局. 2014.
3. 金陵 外 7人. 四川成都天回漢墓醫簡整理簡報. 文物. 2017. 63(12).
4. 杜鋒. 老官山醫簡中的“敝昔”與扁鵲名號. 名作欣賞. 2014. 35(8).
5. 梁繁榮, 王毅, 李繼明 主編. 揭秘敝昔遺書與漆  
 人: 老官山漢墓醫學文物文獻初識. 成都. 四川科學技術出版社. 2016.
6. 呂茂東, 馮姍姍. 醫祖扁鵲其人其事新考. 管子學刊. 2019. 33(1).
7. 廖育群, 傅芳, 鄭金生 著. 박현국, 김기옥, 이병옥 共譯. 中國科學技術史·醫學篇. 서울. 일중사. 2007.
8. 柳長華 外 4人. 四川成都天回漢墓醫簡的命名與學術源流考. 文物. 2017. 63(12).
9. 劉興隆 外 3人. 成都老官山漢墓出土醫簡《六十病方》方劑劑型考辨. 中醫藥文化. 2016. 31(1).
10. 야마다 케이 지 著. 윤석희 박상영 共譯. 중국 의학의 기원. 경기도. 수퍼노바. 2016.
11. 王一童 外 5人. 桂芍栝實湯配伍原理及源流初探. 現代中醫藥. 2019. 39(4).
12. 王一童, 李繼明, 賈波. 老官山醫簡《六十病方》治消渴諸方組方用藥特點探析. 中華中醫藥雜誌. 2018. 33(5).
13. 王一童, 王麗, 李繼明. 成都老官山漢墓出土醫簡標識符號析義. 中醫藥文化. 2016. 31(1).
14. 袁開惠 外 3人. 老官山漢墓醫簡《六十病方》病名釋難. 古籍整理研究學刊. 2018. 34(4).
15. 이경. 중국 출토문헌에 보이는 傷寒方의 문자학적 분석. 대한한의학회지. 2019. 32(3).
16. 이병옥, 김은하, 박종현. 名醫別錄의 病理學史에 관한 研究. 동서의학. 2000. 25(4).
17. 張如靑. 馬王堆《五十二病方》與老官山《六十病方》“沸”字考辨—兼論古代一種特殊煎藥法. 中醫藥文化. 2019. 34(5).
18. 張延昌 主編. 武威漢代醫簡注解.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6.
19. 장용훈 김용진. 馬王堆醫書에 나타난 病因·病機 및 病證에 관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1999. 12(1).
20. 豬飼祥夫. 四川成都老官山の醫學資料概觀(下). 漢方の臨床. 2016. 63(4).
21. 전병훈, 우원홍, 정우열. 瘀血의 概念에 관한

102) 呂茂東, 馮姍姍. 醫祖扁鵲其人其事新考. 管子學刊. 2019. 33(1). pp.73-81.  
 103) 杜鋒. 老官山醫簡中的“敝昔”與扁鵲名號. 名作欣賞. 2014. 35(8). pp.15-16.  
 104) 柳長華 外 4人. 四川成都天回漢墓醫簡的命名與學術源流考. 文物. 2017. 63(12). pp.58-61.

- 東醫學的 考察. 동의병리학회지. 1989. 4(1).
22. 趙懷舟 外 4人. 《六十病方》地名略考. 中醫藥文化. 2015. 30(4).
23. 趙懷舟 外 4人. 成都老官山漢墓《六十病方》和《武威漢代醫簡》的比較研究. 中醫藥文化. 2015. 30(5).
24. 周祖亮, 方懿林. 試論簡帛醫書相似方藥文獻的淵源與流傳.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19. 26(4).
25. 周祖亮. 老官山醫簡《六十病方》藥物學成就探析. 中藥材. 2016. 39(12).
26. 陳星. 老官山漢墓醫簡外治法研究. 成都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27. 하기태, 정한솔, 신상우. 居延漢簡과 傷寒論의 病症 비교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1. 25(1).
28. 和中浚 外 3人. 論老官山漢墓醫簡《六十病方》的“鼠”與“風偏清”. 中醫藥文化. 2017. 32(6).
29. 和中浚 外 4人. 老官山漢墓《六十病方》與馬王堆《五十二病方》比較研究. 中醫藥文化. 2015. 30(4).
30. 和中浚 外 5人. 老官山漢墓醫簡《六十病方》排序研究. 中醫文獻雜誌. 2015. 22(4).
31. 和中浚 外 5人. 老官山漢墓醫簡《六十病方》體例初考. 中醫文獻雜誌. 2015. 22(3).
32. 黃龍祥. 老官山出土漢簡脈書簡解讀. 中國針灸. 2018. 38(1).
33. 張機. 桂林古本傷寒雜病論.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부록]

『육십병방』 원문

병방 번호	병증명칭	원문내용(죽간번호)
1	風痹 汗出	一治風痹汗出方。水三石，陳粟三斗，鹽三斗煮之。每釀，水一石、粟、鹽各一斗，三沸三裏(釀)，前美食，齊(濟)取其汁(118) 浴之，已復美食，毋令汗出(108)
2	頭	治頭。取良椒(菽)麥，麩，取白者一升，馬適(矢)一升，膏(鴟)惡(望)一升，合和以塗之，以柔炭灸之，不過再爲而已。已試。… 方(防)風、姓鼠、舉柏各一分，利如二分 • 凡廿四物皆治合 … (339)
3	瘕	三治瘕。石脂治之，以三指最(瘕)，直(置)溫酒中盥(飲)之。(119)
4	心腹承瘕	治心腹承(承)瘕、字餘病、少腹痛，此皆有種，案(按)之應手，方(妨)食，及氣暴上腹，盈放(妨)息者(117)
5	腹後膏成農(臞)者	五治腹後膏成農者。取鯉魚長尺者二枚，膠一斤，水一斗，并煮再沸，蓋，直(置)之清地，盥(飲)其汁(204)，食其魚而臥(148)
6	金傷	治金傷。… 燔治鮪魚頭二分，人髮一分，以樽 … 治龍骨(139)。禁魚、鼠、馬肉、葷，生肉，黍(黍)節(節)，魏人，女子布 … 傷。裹以鼠生膏，月(肉)生半，傷即乾矣。乾者治龍骨以樽傷，毋以鼠膏而用羊煎脂，以黍米爲藥(317) 六治金傷。熬蜀椒、弓窮，治棘二，弓窮一，合入刀刮一，酒二斗，口盥之。燔治鮪魚頭二分，一□一分，以樽 … 而以裹傷，禁魚、鼠、馬月(肉)、葷、生月(肉)、口節、魏人、女子布。(143)
7	益氣輕勁	• 治益氣口鹿腸，則各一分，犁如，牛膝，卑卑，山朱臬，桔梗，圭，蜀椒，白芷，細辛各二分。(120)
8	風	八治風。石脂七分，蜀椒五分，方(防)風、細辛各四分，厚栝(櫟)五分，陳朱(朱)臬(臬)一分，圭十分，薑(薑)六分，皆治合(109)，以方寸匕取藥，直溫酒一杯中盥之，衰益。(112) 用犁(犁)盧(盧)屑二料，烏喙屑三料，已屑石膏有(又)孰(孰)研之四料，半夏屑五料 … 風水方(114) 白質十，大口之，孰即取所合藥，并人蜀椒中，有孰撓研破之，以孰爲故，取一料(130) 以蜜完(丸)，如起實(192)

9	風聲	九治風聲。屑細辛、薑(薑)、圭(桂)、蜀椒、土瓜、并蕉莖等(127)
10	風汗	止風汗出方(261)
11	風熱中 熱中	(十一)治風熱中。苦蕒四分, □石三分, 小椒、圭(桂)、兔絲實各一分, 提母二分, 合和以方寸匕取藥, 直(272)
12	寒熱	灸之令黃(149) 皆并和丸如梧實(115)
13	上氣	十三治上氣。美酒二斗半, 棗飴半斗, 棗半斗, 此菟五升, 圭(桂)二尺, 薑(薑)五果(顆), 兔煎脂半升。父且, 段其圭(桂)、薑、菟, 壁(擘)其棗, 合分以爲三分, 置一分, 收令沸止火, 入一分, 凡三分, 漚取其汁奮之。(315)
14	欬(咳)	治欬 ... 始吞一, 不知吞三, ... 紫菀、款冬治咳嗽(134) 治啞咳。菟二隻, 則一果(顆), 皆屑七分, 以所常溲塗完之, 以爲七完。燔一使赤, 卒一合口酒中飲完之。(121) ... 稍益, 以知爲溲, 可治咳、逆氣(153)
15	鼠	十五治鼠(105) □取毛鼠剝去其腸, 治鼠, 直(置)其腹中, 置之甕中, 以一糶蓋而塗之, 炊以桑薪三日, 出而治(116)
16	□(頰)山(疝)	十六治頰山(疝)。取此芻七分, 少辛(細辛)四分, 厚朴二分, 杏核中實, 圭(桂), 蜀椒(椒), 蕉莖各一分。合和, 以方寸半刀取藥□(166) 直(置)溫酒中奮(飲)之, 衰益, 以知毒爲齊(劑)。• 其一曰: 治山(疝), 取穀大把二, 乾薑三果(顆), 圭(桂)二尺, 勻(勻)藥五寸, 棗半斗(156) 淳(醇)酒三斗, 合和, 以爲三釀三沸, 漚取汁, 奮(飲)之, 日再奮, 奮一升, 衰益, 以知毒爲齊(劑)。(128)
17	女山(疝)	十七治女山。山芥(352) 以方寸匕取藥, 直(置)溫酒一杯中奮(飲)之, 旦莫(暮)常先補食。• 山芥, 茺(亦)也。皆治(275)
18	腸山(疝)	
19	內崩	十九止內崩方。取麻小蒸之, 摩取其中膏二升, 以美酒桑之, 先旦莫(暮)食。• 其一曰: 取狗肝薄葉之, 以(209)

20	女子不月	治女子不月 … 三指撮至節，直美酒中飲之。(197)
21	論	治女子論及內備(崩)及弱(溺)血者：取穀三把，以淳酒一斗，三乃煮之，孰(熟)，溲而齋(飲)其汁。已嘗試。毋禁。毋禁。精。(144)
22	黃蘗	
23	蠶	宿毋食，瀉(強)齋(飲)其汁(316)
24	寒熱欬膠	廿四治寒熱欬膠。取款冬、菟各百只，則五十果(顆)，牛糲大把，煮以水九斗，令三費(漚)，濟其汁，露之一宿。□□以漬□(135)
25	目多泣	廿五治目多泣。取投羊角、少辛(細辛)相半，屑之，以方寸匕取藥，直酒中飲(飲)之。取鱈魚膽陷築其中，陰乾之，傅之，灸巾以尉(熨)目。(167)
26	白徙	
27	飲消石	□飲消石方。取湯一升置杯中，消石半升置湯中。蓋毋使見風，撓澤飲之。飲之使人泄，三出之後，卽渴。溫梳汁辛(滓)相半(267)
28	下氣	廿八治下氣。取白昌根七尺，圭尺，煎一果。并治，三指撮，每旦齋。白昌，一名曰三白。(189)
29	身大花	廿九已身病大花方。取柏葉莖之，春之，木臼中孰(熟)之，可一石所，以美酒六斗，三乃煮之，已，液，溫汁令熱，以泔(瀕)芘，百日已(207)
30	四支擊詘	卅已人身及四支(岐)擊詘(屈)不可信(伸)者方。取新金黍以盛美醴，黍生青，卽取黍生青善藏之，取大(211)合直卽中煎之，煎善齊此，如桃，卽有病擊詘(屈)不信(伸)，以青摩之。有(艾)可以治面皯，以傅之。•公孫方。(213)
31	鮮鱗	卅一治鮮(鱗)。取白芷，以美酸漬之十餘日，取以挹(施)之。已試行。都昌跳青方。(196)
32	腸已[身之]不用者	卅二治湯(腸)。取黍米四斗，善炊實(餽)而勿孰(熟)。令兩男嬰兒、兩女嬰兒唯哺之，直(置)盆中，沃以水四斗，撓，濟取其汁(151)置四升釜(釜)中，加余(餘)汁上炊，令至四升，側，濟取其汁，飲(飲)之。已飲(飲)而卧，令人摩身之不用者。(147)

33	傷倉	卅三治傷倉(飲)方(305)
34	傷寒足清養(養)者	卅四治傷寒而足清(清)養(養)者。取桐根、蛇床莖各一斗，鹽一升，煮以水六斗，一潰(沸)濟取其汁，以漬足已，炙巾，尉(斂)之(133)
35	身口傷	卅五身有疵傷。取柳、楊、荆、藜枝葉莖長寸，以水泊三溫煮而浴若洗之。其甚者，莖穀、柏支(枝)以益此四物者，并(124)
36	過及惡傷 口及要(腰)傷	(卅六)治過及惡傷，取藁完屑之，以潤煎之，令可以塗(涂)面，以塗(涂)之，去輒(輒)更施之。• 已試行。• 濟北守丞方。(161)
37	嬰[兒爛方]	(卅七)治嬰兒間(爛)方。黃黍米取口汁六斗，漬月布其中令色如赤椒(椒)汁，漉，去布因莖穀莖五斗，尤三罷，父且(吹咽)段，并內汁(270)中吹，如孰(熟)羹狀，汁可四斗，灑去莖(滓)。置新煎麩膏一升半汁中，撓，適寒溫，以浴嬰兒，道(導)顛上灌摩下至足，以孰(熟)(190)爲故，已□□□下齒，燂治，三指取(撮)，溫所浴汁半杯，置其中以倉(飲)嬰兒，汗出畢，起。病未已，復溫故汁(206)浴倉(飲)，如此不過三，必已。汗不出，不可已。(210)
38	厥	卅八治蹙(蹙)。屑勻(勻)藥、方(防)風、細辛、蜀(椒)、薑、桂各六撮，伏(茯)靈三撮，并合，撓，先旦夕食，溫美酒一杯，飲藥二撮，日再，病已止。禁。(212)
39	溫病	以水半斗，煮米一升，米麴(才)孰(熟)，捉以巾取汁(215) 治溫病發(215)
40	傷肺	
41	風偏清	卅一治風偏清之方。取灑酒三斗，苑五升，煎十果(頤)，乾薑十果(頤)，桂二尺，雞卵七，黍(黍)梁三分升一，卒鉛半斗，棗半斗，辟(擘)(304)之。潰其卵。父且其藥，并置金壺中，泊釜，加甌其上，置壺甌中，懸(懸)以良叔，與壺口濟，與壺口濟，攪之，三潰(沸)。(165)
42	大伏蝮蝥 蝥	卅二治心腹爲病也，如大伏蝮蝥，動如蛇蟻蝥，此皆在腸中，及季穀，諸它穀之動，如鼠蜂雀成蟲者。(178)

43	心腹	治心腹爲病也 … 曰死病也，及心甬(痛)痹。此皆在腸、心、肝、肺之間，不可別名也，人衆謂之(171)心腹痛。久者十餘歲，及水諸張(眼)，皆難治也，其實皆與腹心同藥治之 … (175)其病在心、腹、肝、肺間，所出食，有取丹參、莎參、苦參、玄參、此(柴)參、芍藥等屑，并和。夕食，以一刀圭爲後飯，卽益，至一撮，日三，此巳(已) … 其病在腹中者，苦參主脇，玄參主脇，此(柴)參主心，芍(芍)藥主少腹，病所在卽倍其藥。方曰服之百日，今再試之，廿日其病巳(已)。(172, 157, 160)
44	逆氣	• 冊四治逆氣。屑蜀椒四、薑二、桂、烏喙、桔梗各一 … 倉(飲)藥一刀圭(219) … 稍益，以知爲濟，可治咳、逆氣(153)
45	內消倉少溺多者	冊五治內消，倉少溺多有膏。□鉛十斤，稍人斧(釜)匈(胸)，燔令銷，而煔鉛廿斗水中，合耗爲五斤，善精，取其水。以稻米(225)
46	消渴	冊六治消渴。凝水、栝藟(樓)各二分，澤寫(瀉)一分，治合和，以美黍丸大如芡，始吞十九(丸)，衰益，以知毒爲齊(劑)。(154)其一曰：長石一，凝水石一，圭(桂)、薑(薑)各二分，蜀椒(椒)二，兔絲實二分，治，合和，以小蓼(樓)卓(自)取藥直(置)水華一升中，倉(飲)之，有間，倉(飲)使人懷，亡皆可(154, 253) 其一曰：蜀(椒)、長石、圭(桂)、兔絲實各一分，礬半分，薑、凝水石各二分，合和，以中[樓]卓(自)取藥，直(置)水中倉(飲)之，有頃倉(飲)(藥)，分日夜以五倉(飲)之，節。溲多，負凝水石；渴，負圭(桂)；煩，負薑；飢，負長石(177)一曰：苦葶州分，龍膽十分，沉瀝十分，圭(桂)、□、薑(薑)各五分，則(劑)、增青、白丹各三分，皆治，并合之，取生栝(樓)根，搗而捉取其汁，澄，湯之以酒(185, 182) 治消止溺。取栝(樓)六分，長石四分，凝水石、李(理)石各二分，思石一分，皆治，合和，以方寸簡取藥，直(置)酒中(藥)亦可，爲限，以水□倉(飲)之，日三(234, 220) 其一曰：消渴弱(溺)多不止。苦(栝)樓(樓)六分，長石四分，凝水石、理石各二分，思石一分，合和，以方寸簡七取藥，直(置)溫酒中倉(飲)之(220)治渴，屑龍膽，以生苦(栝)樓汁完(丸)之(220, 227)
47	字難	治字難者(230)
48	女子嘔	冊八治女子病嘔在少腹，如懷子者，要(腰)甬(桶)甚，豆惡下，下不止者，此等恐有蟲。若肌青如蟲狀 … (252)
49	風癰	冊九治風癰。屑貝母、商、烏喙等，并合，取四握，入水一斗半中，炊沸，釀米一升，炊米聚止火，益之□□復炊之五而已，已(181)
50	內癰	

51	內風	五十一治內風。□□衣令黃焦屑之三。荒二。貝母一半。薑。圭。蜀椒各一升合。溫美酒一杯。取藥二撮，撓 <small>盒</small> (飲)之(235)
52	傷中	五十二治傷中。傷中者，其瘦口日清之，其下如靡米狀，治取羊肝、腸、胃謹油，細刊之。… (226) • 治傷中。赤叔一斗，黍藩五斗，馬膈中束一，則三果，并煮 <small>口</small> 以爲二斗。日食三阿脯。叔一參(240)
53	內崩 金傷 赤論	五十三治內崩(崩)金傷及女子赤論方。取全黑犬骨、羊角燔治各二，燔人髮半，熬大叔取中黃者，薑(195)凡七物，并合，撓，取一撮入溫淳酒一升中，撓， <small>盒</small> (飲)之。… 能 <small>盒</small> (飲)之。雖一日數 <small>盒</small> (飲)可也(183)
54	隔中	五十四，治隔中。治乾土令大如米者一斗半，分以爲五，裹蒸(蒸)熱，以一尉(尉)兩脇，寒更之，復蒸(蒸)，病已止。不過二日必已。(245)
55	內痧	治內痧，取生地黃 <small>口</small> 之半斗，以醇酒三斗沃，稍溫 <small>盒</small> 之(222)
56	風痹初發	(五十六)治風痹初發，身爲寒熱灑灑痛者。用杏核十四取中人(仁)，細辛一小 <small>口</small> (研)，蜀椒一合，薑二果(顆)，圭(桂)二尺，父祖(咬咀)，置酒半斗。… 涂 <small>塗</small> (藥)痹。取髓膏一杯，石 <small>口</small> 一杯，白芷一杯，合直(置)鼎中煎之，煎善者此，以涂 <small>塗</small> (藥)之。(138)
57	暴血 血痹	五十七治血暴發者。屑土瓜二，牡蒙，茵圭(桂)各一，取一 <small>盒</small> (論)，溫美酒半升，莫母食，且 <small>盒</small> (飲)之，日一。五日已。禁。(246) 治血痹。屑白敏、勻(芍)藥、節華、薑、圭(桂)、小棘、朱萸等并合，取三撮，入美酒一升中，先舖食 <small>盒</small> 之，日三。三日知，五日已(249)
58	心暴痛	治心暴痛：屑棘(椒)核一升，以酒一杯 <small>盒</small> (飲)之。其一曰：比屋左築，以左手取其木若草蔡長尺，卽禹步三。折，置病者心上。因以左足徐踵之，男七，女二七，已(已)。已(已)試。(223, 233) 治心痹(113)
59	氣暴上走噓	治氣暴上走噓。… 半夏。… 安吹。… 爲一斗。… 液去宰(236)
60	泄而煩心	六十 治泄而煩心。煮漿三斗，適病者酸淡。父祖白薇(薇)三撮，入中吹之三沸，而罷去宰(宰)清，取汁二升，吹之沸，因取柝(243) 粢米二合，安吹令爲二升，適寒溫，先且食，薑 <small>盒</small> (飲)之。卽煩心，入白薇(薇)一兩，十七已。• 蔡(242) 治煩心。… 取菅苴，細莖，泊以水財足，三泔煮，孰(熟)，液去宰(宰)， <small>盒</small> (飲)其汁(237)

『육십병방』 죽간 번호에 따른 원문 내용

죽간 번호	원 문	연관 죽간번호	병방 번호
105	十五治風	105, 116	15
108	浴之, 已復美食, 毋令汗出	118, 108	1
109	八治風。石脂七分, 蜀椒五分, 方(防)風、細辛各四分, 厚柑(樸)五分, 陳朱(茱)萸(黃)一分, 圭十分, 薑(薑)六分, 皆治合	109, 112	8
112	以方寸匕取藥, 直溫酒一杯中啜之, 衰益。		
113	治心痹		58
114	用梨(梨)蘆(蘆)屑二料, 烏喙屑三料, 已屑石膏有(又)孰(熟)研之四料, 半夏屑五料風水方	114, 111, 130, 192	8
115	皆并和丸如梧實	198, 149, 115	12
116	□取毛鼠剝去其腸, 治礬, 直(置)其腹中, 置之蠶中, 以一蠶蓋而塗之, 炊以桑薪三日, 出而治	105, 116	15
117	治心腹季(承)腹、字餘病、少腹痛, 此皆有積, 案(按)之應手, 方(妨)食, 及暴血在心腹, 及氣暴上腹, 盈放(妨)息者		4
118	一治風痺汗出方。水三石, 陳粟三斗, 鹽三斗煮之。每釀, 水一石、粟、鹽各一斗, 三沸三裏(釀), 前美食, 齊(濟)取其汁	118, 108	1
119	三治腹。石脂治之, 以三指撮(撮), 直溫酒中啜之。		3
120	• 治益氣□鹿腸, 則各一分, 梨如, 牛膝, 卓孛, 山朱臬, 桔梗, 圭, 蜀椒, 白芷, 細辛各二分。		7
121	治沓咳。菟二隻, 則一果(顆), 皆屑七分之二, 以所常溲塗完之, 以爲七完。燔一使赤, 卒一合□酒中飲完之。		14

122	鞠(鞠)四斗, □之日, 濟取其汁, 爲炊稻米、黍米、米□半七斗釀之一宿, 炊六斗釀之一宿, 炊五斗釀之一宿, 炊四斗釀之一宿, 炊三斗釀之一宿	35
124	卅五身有疵傷。取柳、楊、荆、藜枝葉莖長寸, 以水汨三溫煮而浴若洗之。其甚者, 莖穀、柏支(枝)以益此四物者, 并	
125	… 煮棗七□濟之取汁, 以餅藥大如人耳, 厚少半寸陰乾之。服藥大如赤豆, 屑, 以爲後飯	
127	九治風聾。屑細辛、薑(薑)、圭(桂)、蜀椒、土瓜, 并蕉莢等	9
128	淳(醇)酒三斗, 合和, 以爲三釀三沸, 濟取汁, 禽(飲)之, 日再禽(飲), 禽(飲)一升, 衰益, 以知毒爲齊(劑)。	156, 128
129	三指撮, 直溫酒一杯中, 日三飲	
130	白實十, 大□之, 孰卽取所合藥, 并人蜀椒中, 有孰撓研碎之, 以孰爲故, 取一料	114, 111, 130, 192
133	卅四 治傷寒而足青(清)養(癢)者。取桐根、蛇床莖各一斗, 鹽一升, 煮以水六斗, 一潰(沸)濟取其汁, 以漬足已, 炙巾, 尉(敷)之	34
134	治欬 … 始吞一, 不知吞二, 不知吞三。… 紫菀、款冬治咳嗽	14
135	廿四治寒熱欬。取款冬、菀各百只, 則五十果(顆), 牛薊大把, 煮以水九斗, 令三費(潰), 濟其汁, 露之一宿。□□以漬□	24
136	治風入 治石蠶卅三 治獸卅八 治內崩(備)金傷赤論五十三	題名簡8
137	治益氣輕勁七 治黃藥廿二 治嬰[兒]疳方卅七] 治傷中五十二	題名簡7
138	涂(塗)藥。取鼠膏一杯, 石□一杯, 白芷一杯, 合直(置)鼎中煎之, 煎善齊此, 以涂(塗)之, 炙之。	56
139	治金傷。… 燔治鮪魚頭二分, 人髮一分, 以傅治龍骨	139, 317, 143
141	藥中暴乾, 復漬以燼酒, 乾取如赤豆吞	

142	治麻寒。淳(醇)酒二斗，則(節)二百果(臠)，父(吹)且(咽)，豨(鴆)漬淳(醇)酒中，卒六時，孰，捉令宰乾，取美棗一斗，漬□。	
143	六治金傷。熬蜀椒、弓窮，治林二，弓窮一，合入刀割一，酒二斗，□盒之。燔治鮪魚頭二分，一□一分，以傅而以裹傷，禁魚、龜、馬月(肉)、葷、生月(肉)、□節、魏人、女子布。	139, 317, 143 6
144	治女子淪及內備(崩)及弱(溺)血者：取穀三把，以淳酒一斗，三泔煮之，孰(熟)，浚而盒(飲)其汁。已嘗試。毋禁。精	21
146	淖吹黃梁飯而食，… 煮穀、簡黍、柳浴之，溫衣而臥，令汗出 …。	
147	置四升釜(釵)中，加余(餘)汁上炊，令至四升，側，濟取其汁，飲(飲)之。已飲(飲)而臥，令人摩身之不用者。	151, 147 32
148	食其魚而臥	204, 148 5
149	炙之令黃	198, 149, 115 12
151	卅二治湯(腸)。取黍米四斗，善吹賣(饋)而勿孰(熟)。令兩男嬰兒、兩女嬰兒噉(嚼)之，直(置)盆中，沃以水四斗，撓，濟取其汁	151, 147 32
153	… 稍益，以知爲濟，可治咳、逆氣，	14,44
154	卅六治消渴。凝水、栝(樓)各二分，澤舄(瀉)一分，治合和，以美黍丸大如起實，始吞十九(丸)，衰益，以知毒爲濟(劑)。其一日：長石一，凝水石一，圭(桂)、量(薑)各二分，蜀(椒)二，兔絲實二分，治，合和，以小象青(橡)阜(自)取藥直(置)水華一升中，奮(飲)之，有間，奮(飲)使人罷，它皆可	154, 253 46
156	直(置)溫酒中奮(飲)之，衰益，以知毒爲濟(劑)。• 其一日：治山(疝)，取穀大把二，乾薑三果(顆)，圭(桂)二尺，勻(芍)藥五寸，棗半斗	166, 156, 128 16

157	其病在腹中者，丹參主匈(胸)，莎(沙)參主腹，苦參主脇，芩(紫)參主心，勻(芍)藥主少腹，病所在卽倍其藥。(157, 160) 治心腹爲病也 … 曰死病也，及心雨(痛)痹。此皆在腸、心、肝、肺之間，不可別名也，人猿謂之心腹痛。久者十餘歲，及水諸張(脹)，皆難治也 … 其病在心、腹、肝、肺間，所出食，有取丹參、莎參、苦參、支參、芩(紫)參、芍藥等屑，并和。夕食，以一刀圭爲後飯，削益，至一撮，日三，此巳(已) … 其病在腹中者，苦參主脇，支參主腸，芩(紫)參主心，勻(芍)藥主少腹，病所在卽倍其藥。方曰服之百日，今再試之，廿日其病巳(已)。(171, 175, 172, 157, 160)	171, 175, 172, 157, 160	43
158	□□桃已滋藥湯，以手摩之。• 獨煮殺若柏亦可，甚精，已試。… 息生方		
160	* 위 의 157번에 함께 기록.	171, 175, 172, 157, 160	43
161	[卅六]治過及惡傷，取藥皖屑之，以濁煎之，令可以塗(涂)面，以塗(涂)之，去轍(輒)更施之。• 已試行。• 濟北守丞方。		36
163	得莫(暮)勿食 … 禁勿食月(肉)葷		
164	靡爲靡，卽米一升，水三升，成靡五升，日三食之，三日而止。		
165	之。潰其卵。父且其藥，并置金壺中，泊釜，加甌其上，置壺甌中，糲(鑿)以良叔，與壺口濟，炊以茱修，撓之，三潰(沸)。	304, 165	41
166	十六治巖山(疝)。取芩芎七分，少辛(細辛)四分，厚栝二分，杏核中實，圭(桂)，蜀椒(椒)，蕉莢各一分。合和，以方寸半刀取藥□	166, 156, 128	16
167	廿五，治目多泣。取羶羊角、少辛相半，屑之，以方寸匕取藥，直酒中飲(飲)之。取鯉魚膽陷絮其中，陰乾之，傅之，炙中以尉(敷)目。		25
168	取善棗一掬，潰，而以水半參，煮之使靡(糜)		

171	此皆在腸，心，肝，肺	171, 175, 172, 157, 160	43
172	其病在心，腹，肝，肺間		
175	心腹病久者十餘歲，皆難治也，其質皆與腹心同藥治之		
177	其一曰：蜀(椒)，長石、圭(桂)、兔絲實各一分，礬半分，薑、礬水石各二分，合和，以中[椽]卓(白)取藥，直(置)水中盥(飲)之，有頃盥(飲)之，節。澁多，負礬水石；渴，負圭(桂)；煩，負薑；飢，負長石	177, 185, 182	46
178	冊二治心腹爲病也，如大伏蟪蝓蝓，動如蚘蠶蝓者，此皆在腸中，及季腹、諸它腹之動，如鼠蜂窠成蟲者。		42
179	誨(每)輔食，取藥一撮，以爲後飯以非唾華紅時取，陰乾。乾治		
181	冊九治風癩。屑貝母、商、烏喙等，并合，取四撮，入水一斗半中，炊沸，釀米一升，炊米粲止火，益之□□復炊之五而巳，巳		49
182	※ 위의 177번에 함께 기록.	177, 185, 182	46
183	凡七物，并合，撓，取一撮入溫淳酒一升中，撓，盥(飲)之 ... 能盥(飲)，雖一日數盥(飲)可也	195, 183, 180	53
184	幸者，一盥已。病甚者，十餘盥已。• 治赤論亦用此藥。• 禁毋寒食		
185	一曰：苦蔞卅分，龍膽卅分，沈潘十分，圭(桂)□置(薑)各五分，則(煎)、增青、白丹各三分，皆治，并合之，取生栝婁(蔓)根搗而捉取其汁，澄，渴之以酒(185, 182)	177, 185, 182	46
186	治金傷六 治過及惡(腰)傷卅六 治內風五十	題名簡6	
187	治腹後膏成農(膿)者五 治女子不月廿 治身□傷卅五 治內羶五十	題名簡5	
189	廿八治下氣。取白昌根七尺，圭尺，煎一果。并治，三指撮，每旦盥。白昌，一名曰三白。		28

190	中吹, 如孰(熟)羹狀狀, 汁可四斗, 灑去滓(滓)。置新煎麩膏一升半汁中, 撓, 適寒溫, 以浴嬰兒, 道(導)願上灌摩下至足, 以孰(熟)	270, 190, 206, 210	37
192	以蜜完(丸), 如起實	114, 111, 130, 192	8
193	容六十四黍粟 然盈。• 其病當心痛, 放(妨)食者。• 已試廢丘車里大夫爰壹, 吞二完, 病已。偶		
194	令三沸, 接(浚), 舍(飲)其汁, 陰乾其滓(滓), 乾, 屑二		
195	五十三治內側(崩)金傷及女子赤淪方。取全黑犬骨、羊角燔治各二, 燔人髮半, 熬大椒取中黃者, 薑	195, 183, 180	53
196	卅一 治鮮(癩)。取白芷, 以美酸漬之十餘日, 取以把(施)之。已試行。都昌跳青方。		31
197	三指巖至節直美酒中飲之 治女子不月		20
201	其病氣暴上腹盈痛放(妨)息者。已試廢丘蒼里大夫□□, 吞二完, 病已。其病當心眩。		
202	有積案之應手放(妨)食者。已試廢丘卜里人婢, 再吞各三完, 病已。		
203	禁葷, 麩月(肉), 鮮魚		
204	五治腹後膏成農者。取鯉魚長尺者二枚, 膠一斤, 水一斗, 并煮再沸, 蓋, 直(置)之清池, 舍(飲)其汁	204, 148	5
206	爲故, 已□□下齒, 燔治, 三指取(撮), 溫所浴汁半杯, 置其中以舍(飲)嬰兒, 溫衣臥, 汗出畢, 起。病未已, 復溫故汁	270, 190, 206, 210	37

207	廿九已身病大疔方。取柏葉莖之、春之、木臼中孰(熟)之、可一石所、以美酒六斗、三泔煮之已、浚、溫汁令熱、以泔(灑)疔、百日已	29
209	十九止內崩方。取麻小蒸之、摩取其中膏二升、以美酒桑之、先旦莫(暮)食。• 其一曰：取狗肝薄葉之、以	19
210	浴舍(飲)、如此不過三、必已。汗不出、不可已。	270, 190, 206, 210
211	卅：已人身及四支(肢)攣誼(屈)不可信(伸)者方。取新金盃以盛美醢、盃生青、卽取盃生青善藏之、取大	211, 213
212	卅八治瘧(厥)。屑勻(芍)藥、方(防)風、細辛、蜀(椒)、薑、桂各六撮、伏(茯)靈三撮、并合、撓、先旦夕食、溫美酒一	38
213	合直鼎中煎之、煎善齊此、病攣誼不信、以青摩之。有(又)可以治面辟、以傳之。• 公孫方。 如桃、卽有病攣誼(屈)不信(伸)、以青摩之。有(又)可以治面辟、以傳之。• 公孫方。	211, 213
214	… 一合直半杯酒口舍(飲)之、卽(卽)已。枳鐵、鑿也。	
215	以水半斗、煮米一升、米糲(才)孰(熟)、捉以巾取汁 治溫病發	215
219	舍(飲)藥一刀圭 • 卅四治逆氣 屑蜀椒四、薑二、桂、烏喙、桔梗各一 …	44
220	其一曰：消渴弱(溺)多不止。苦(楛)葉(樓)六分、長石四分、凝水石、理石各二分、惡石一分、合和、以方寸簡匕取藥、直	234, 220, 227
222	治內瘡、取生地黃口之半斗、以醇酒三斗沃、稍溫舍之	55
223	治心暴痛：屑楛(椒)核一升、以酒一杯舍(飲)之。其一曰：比屋左榮、以左手取其木若草蔡長尺、卽禹步三。折、置病者	223, 233
225	卅五治內消、舍少弱多有膏。口鉛十斤、稍人斧(釜)胸(胸)、燔令銷、而碎鉛甘斗水中、合耗爲五斤、善精、取其水。以	45
	稻米	

226	五十二治傷中。傷中者，其瘦口日清之，其下如糜米狀，治取羊肝、腸、胃蘆油，細剉之 …	52
227	治渴，屑龍膽，以生苦(栝)蘘汁完(丸)之	220, 227
230	治字難者	47
232	(五十六)治風痹初發，身爲寒熱灑灑痛者。用杏核十四取中人(仁)，細辛一小口(研)，蜀椒一合，薑二果(顆)，圭(桂)二尺，父祖(咬咀)，置酒半斗 …	56
233	※ 위의 223번에 함께 기록.	223, 233
234	治消止瀉。取栝蘘(糞)六分，長石四分，凝水石、李(理)石各二分，思石一分，皆治，合和，以方寸簡取藥，直(置)酒中，(糜)亦可，爲懷，以水口(飲)之，日三	234, 220
235	溫美酒一杯，取藥二撮，撓(飲)之 五十一治內風。□□衣令黃焦屑之三。荒二。貝母一半。薑。圭。蜀椒各一併合 …	51
236	治氣暴上走噓 … 半夏 … 安吹 … 爲一斗 … 浚去滓	59
237	取菅莖，細莖，泊以水財足，三乃煮，孰(熟)，浚去滓(滓)，(飲)其汁 治煩心	60
240	• 治傷中。赤叔一斗，黍潘五斗，馬肺中束一，則三果，并煮口以爲二斗。日食三肺肺。叔一參	52
241	置酒半斗中吹，宿，浚去滓(滓)，盡(飲)汁，卧，汗出免足，以寒水漬巾，捉以摩頭面身，一已。	
242	粳米二合，安吹令爲二升，適寒溫，先旦食，盡(飲)之。節煩心，入白微(微)一兩，十七已。• 禁	60
243	六十治泄而煩心。煮漿三斗，適病者酸淡。父祖白微(微)三撮，入中吹之三沸，而挹去滓(滓)清，取汁十二升，吹之沸，因取析	243, 242
244	噴者，三祝曰 …	60

245	五十四, 治隔中。治乾土令大如米者一斗半, 分以爲五, 裹蒸(蒸)熱, 以一尉(尉)兩脇, 寒更之, 復蒸(蒸), 病已止。不過二日必已。	54
246	五十七 治血暴發者 屑土瓜二, 牡蒙、茵圭(桂)各一, 取一菴(倫), 溫美酒半升, 莫毋食, 旦食(飲)之, 日一, 五日已。 禁。	57
249	治血鬱。屑白蘗、芍(芍)藥、節華、薑、圭(桂)、小栝、朱萸等并合, 取三撮, 入美酒一升中, 先鋪食奮之, 日三。三日知, 五日已	57
250	屑土萆, 消石等, 并合	
251	□□□中屑、圭、細辛、疾胡, 大黃皆等 □毋汗	
252	冊八治女子病癢在少腹, 如懷子者, 要(腰)兩(脩)菑, 豆惡下, 下不止者, 此等恐有蟲。若肌膚如蟲狀 ...	252, 176 48
253	※ 위의 154번에 함께 기록.	154, 253 46
255	□毋汗	
258	弓(芍)藥(藥)主筋, 黃脂主脂, 白蘗主骨, 病所在, 負其藥	
261	止風汗出方	10
262	治山少腹痛, 引要(腰)脾痛, 前後更難如糞狀 ...	
266	治心腹承(季)腹四 止內崩十九 治傷寒足清養者卅四 治風難卅九	題名簡4
267	□敵消石方。取湯一升置杯中, 消石半升置湯中。蓋毋使見風, 撓澤敵之。敵之使人泄, 三出之後, 卽渴。溫梳汁宰(滓)相半	27

268	莫(暮)母食, 旦先食		
270	[卅七]治要兒問(彌)方。漬黍米取□汁六斗, 漬月布其中令色如赤叔(菽)汁, 泥, 去布因坐穀莖五斗, 朮三籠, 父且(咬咀)段, 并肉汁	270, 190, 206, 210	37
271	□□過一杯, 五出之後, 渴欲飲, 少多自適。全一日勿食它食, 一日之後勿食清, 勿飲酒, 勿食雞月(肉)、麋月(肉)、葷		
272	(十一)治風熱中。苦蘘四分, □石三分, 小椒, 圭(桂), 兔絲實各一分, 提母二分, 合和以方寸匕取藥, 直	272, 221	11
273	… 母禽(飲)漿, 禽(飲)漿則腸辟(澀) …		
274	節(卽)渴, 禽(飲)腕, 母禽(飲)漿, 禽(飲)漿則腸辟(澀)		
275	以方寸匕取藥, 直(置)溫酒一杯中禽(飲)之, 旦莫(暮)常先舖食。• 山芥, 茺(疴)也。皆治	352, 275	17
276	治□(類)山(疴)十六 治鮮(鮮)卅一 治消渴卅六	題名簡1	
278	治風痺□ … 暴血, 氣暴上腹盈痛方息者。壹禽藥病已, 病已三日而復故。		
279	炊三沸, 藥孰(熟), 齊(濟)取其汁, 稍溫禽(飲), 禽三分升一, 日再		
280	治頭二 治女山(疴)十七 治腸已[身之]不用者卅二 治字難者卅七	題名簡2	
304	卅一治風偏清之方。取瀝酒三斗, 菴五并, 蓴十果(類), 乾薑十果(類), 桂二尺, 雞卵七, 黍(黍)三分升一, 卒飴半斗, 棗半斗, 辟(擘)	304, 165	41
305	卅三治傷禽(飲)方		33
306	黃牡牛溺		
308	止風汗十 治日多粒廿五 治傷肺卅 治內癆五十五	題名簡10	
309	… 白參、赤參各一分, 皆治合和, 以方寸半匕取藥, 直(置)酒中禽(飲)之 …		

315	薑、芎、壁(擘)其棗，合分以爲三分，置一分，吹令沸止火，入一分，凡三分，濟取其汁齎之。	318, 315	13
316	宿毋食，瀼(頰)齎(飲)其汁		23
317	禁魚，芎，馬肉，葷，生肉，黍(漆)酢(節)，麁人，女子布傷。麥以麁生膏，月(肉)生半，傷即乾矣。乾者治龍骨以傅傷，毋以麁膏而用羊煎脂，以黍米爲糜	139, 317, 143	
318	十三治上氣。美酒二斗半，梓榆半斗，棗半斗，此芎五并，圭(桂)二尺，薑(薑)五果(顆)，麁煎脂半升。父且，毆其圭(桂)、	318, 315	13
319	治風聲九 治寒熱欬醪廿四 治溫病卅九 治隔中五十四	題名簡9	
324	治寒熱十二 飲消石廿七 治大伏蝟蝟蝟卅二 治暴血血瘰五十七	題名簡12	
327	• 治腐瘳方，陳麁脂治器三、黃芩一，合和膏築，以室傷空。		
328	治上氣十三 治下氣廿八 治心腹卅三 治心暴痛五十八	題名簡13	
329	□風者，其禺風寒析而□心，其心湯湯而善□其爲寒已尚□		
331	發理 • 其一曰心使刑(形)，九讀(讀)皆從，心不使刑(形)，九讀(讀)不通。心應輸則發其 ...		
332	治風熱中十一 治白徒廿六 治風偏清卅一 治風痺初發五十六	題名簡11	
337	一曰：取屏前弱塗丸之，一并燔令火卒之美酒中，會之。		
339	治頭。取良叔(叔)麥，麁，取白者一升，馬適(矢)一升，壽(鵠)惡(望)一升，合和以塗之，以桑灰炙之，不過再爲而已。已試。 ... 方(防)風、姓風、舉柏各一分，利如二分 • 凡廿四物皆治合 ...		2
341	治風十五 治四支擊訛卅 治內消□少溺多者卅五 治泄而煩心六十	題名簡15	
342	治欬十四 治身大疔廿九 治逆氣卅四 治氣暴上走喘五十九	題名簡14	

346	以上六十, 以下其所病 ...	
351	治癩三 治腸山(疳)十八	題名簡3
352	十七治女山。山芥	352, 275 17
378	八、治傷口卅三、治女子癩卅八	題名簡3'

팔호 안의 숫자 : 두 개 이상의 죽간에 해당하는 연속되는 내용의 원문 중에 죽간 번호를 정확히 구별할 수 없는 경우 하나의 죽간 번호에 원문을 기재하고, 원문 뒤 괄호 안에 연관된 죽간 번호를 기입하였다.